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제8회 PT & Critic

#### 한황수 개인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

일시 : 2016년 6월 19일 (일) 오후 4:00 - 6: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한황수 : 저는 공대를 다니면서 공대의 교육방침이나 목적이 어떠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싫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학문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찾게 된 것이 미술이었습니다. 미술 중에서도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책 한 권을 내는 것으로 첫 번째 목표로 세웠습니다. 사진 에세이를 내고 싶은 생각에 저는 사진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선배 작가들의 사진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를 갖고 무작정 따라하게 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리 프리플랜더(Lee Friedlander)나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를 좋아했는데 이 작가들의 흑백 사진을 어떻게 따라할까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제가 마주하게 되려면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외국인들 스냅 사진을 촬영하자라는 생각으로 필름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은 어딘가에서 본 듯한, 제가 무엇을 따라하는지가 잘 나타나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칼라 사진, 디지털 사진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원하는 장면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보니 건물 간판과 지나가는 행인들의 사진이 많았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현란하고 다양한 색이 많은 간판들에 주목했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포착하는 장면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계속 찍고 있는데 그들의 사진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제가 뛰어넘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본 사진처럼 제가 색이나 간판의 텍스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눈에 맞는, 제가 예쁘다고 말하는 명확하고 현란한 색을 주위에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진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느껴 컴퓨터의 디지털 툴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색

을 어떻게 표현할까, 주위에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주된 관심은 형태나 색 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공간을 직육면체라고 가정했을 때 벽이나 바닥 같은 곳은 많이 꾸밀 수 있지만 천장은 사람들이 손도 많이 안 댈뿐더러 한 번 디자인된 상태에서 꾸준히 남아있습니다. 천장에는 선이나 동그라미 같은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아 그것들을 무작정 찍었습니다. 전등, 환풍기 등을 찍어서 제가 원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품 제목에 적혀있는 번호는 작품 순서입니다. 나는 수십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데 다음 작업으로 이어질 때마다 들어가 있는 요소, 도형들이 더 많아지는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지 안에 대각선도 많고 크고 작은 동그라미 형태들이 나열되어 순서대로 관람하는 것이 관람객 입장에서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다르게 하고 천장에 더 가깝게 걸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작품 이미지의 대각선 형태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색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 테이프로 작품과 천장이나 바닥을 연결하거나 임의로 만든 선으로 연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조금 더 현실적인 천장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주어졌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개체들로 하나의 천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고 현실에 가까운 천장을 만들다보니 파이프가 선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여 임의로 선을 추가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전시에서는 실제 파이프를 사용하여 작품 간 연결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작품 배치를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Bfb>는 SNS에서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셀프 사진들을 모아 합성한 작업입니다. SNS에서 제가 모르는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 예쁜 여성들이 많은데 정작 제 주위에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들을 모아서 저의 이상형이라고 생각되는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100명이 똑같이 1%씩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진은 40%, 다른 사진은 0.1% 이런 식으로 제가 성형하듯 깎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주관적으로 이 정도면 예뻐 라고 생각될 때까지 한 장 한 장 만들었던 작업입니다. 이미지를 만든 후 다시 SNS에 올리는데 제가 누군가의 사진을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올리는 형식이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나 작품 전시하는 공간과 어느 정도 맞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초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 초상화를 만들었고 그것을 다시 제 미술관이라는 SNS 공간에 올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듯 댓글과 피드백을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요.'를 많이 누를

수 있도록 태그를 걸기도 합니다. 이 시리즈를 가지고 영상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들은 텍스트에 관련된 작업들로 복합매체 작업입니다. 이발소 간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여 들어오게 하는 상업적인 의미가 있는데 전시 공간 입구에 매달아 상점에서 쓰는 것을 전시장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원하는 텍스트를 넣었고 똑같은 포맷의 '은'이라는 단어가 각각 들어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장들을 맞춰서 연결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LED 전광판에 제가 원하는 문구를 적어 넣을 수 있는데 어느 상가에서 쓰는 문장을 미술관에 어울리도록 제가 만들어서 넣었던 작품입니다. 원래 있는 것에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 <Monologue of the Dawn>은 복합매체에서 연장된 것입니다. 새벽에 상가 주변을 걷게 되었는데 무수히 많은 LED 전광판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을 보여드렸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reelancer> 레고를 살 때 일반적으로는 완성된 모습이 박스에 그려져 있고 그것을 따라 만들고 싶어서 사게 됩니다. 저는 우연히 레고를 줍게 되었는데 그 박스에는 매뉴얼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과도 맞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원하는 색을 넣어 만든 작업입니다.

<Tree> 저는 정해져 있는 모양이나 기호를 변형시키는 것을 원하는 데 그런 의미에서 표지판은 적절한 소재였습니다. 표지판을 찍어서 원하는 색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모두 나무에 가려져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색을 변형시킨 후 작업들을 나열해보니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결성 있게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남극탐험> 제가 타의로 명동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싫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평소 관심 갖던 간판모양이나 색을 바라보다 이것들을 헤치고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전에 했던 '남극탐험'이라는 게임이 떠올라 영상에 펭귄이 뛰어넘어야 할 구덩이를 만들고 게임에 어울릴 법한 사운드를 입혀 작업을 했습니다.

<0.420112> 어떤 작가가 평수를 갖고 작업을 한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저도 자취방의 화장실 평

수를 재보았는데 0.4평이라는 치수가 나왔습니다. 1평도 아니고 0.4평이란 숫자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침 전시장의 한 부분의 구조가 이 작업과 잘 어울리고 그 크기가 2.5배 정도 되는 공간에 맞춰 한정된 제 화장실을 넓히면서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사진을 찍어 변형시킨 선들은 왜곡이 되고 크기가 커지면서 실제 전시장 공간에 맞춰 채워졌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는 원래 거울이었는데 저를 볼 수 있는 거울은 이미지 대신 저에 대한 텍스트로 넣어봤습니다. 저는 힙합 장르를 좋아하고 글을 쓸 때도 라임이나 비슷한 단어들을 섞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노래 가사와 비슷한 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위 분들이 랩으로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해보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토대로 랩 노래를 제작했고 직접 하기엔 부족함이 있어 그 음악을 처음에 들려드렸습니다. 제 작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세준 : 원래 공대를 다녔었고 답이 있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불편했다. 나는 답이 없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던 말이 여기 작업들을 보는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보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은 기존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룰을 만들고 싶어 하는 점, 스스로 끌여가고 싶어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했던 작업까지 쭉 보아오면서 느낀 것은 작업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든지, 색을 쓰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서 그것이 작가의 아이덴티티처럼 보이기도 하고 작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작업을 만드는 방법이 나이브하기도 하고 간단한 키워드나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 가볍게 툭 던지듯 출발해 발전시켜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남극탐험’을 예를 들자면 과제로든 뭐든 명동으로 가서 스냅사진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고 거기서 작업의 소스를 얻고 한 번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가볍게 접근을 해서 살이 붙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구조가 형성되면서 발전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작가들이 반대로, 연역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명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동을 갔다가 특정 작업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한황수 작가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자유분방함을 유지하고 세상에 대한 촉을 세우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모아 또 어떤 것을 나오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성휘 : 지금 전시가 첫 개인전이잖아요? 첫 개인전은 작가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계속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되새김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는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0.420112>작품이 한황수라는 인물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텍스트가 위치한 자리도 거울이잖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을 텍스트로, 라임이라는 룰을 적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미지에 비해 자기 목소리가 쉰고, 이미지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텍스트는 좀 더 뽀족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컴퓨터 모니터 상에 있을 때는, 일종의 데이터 파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물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여기 걸려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물질화가 되어있는 것들인데, 이 물질화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했을까 궁금합니다. 어쨌면 이세준 작가의 말처럼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대단한 목표를 작가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서 만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모니터 상에서 합성하고 색을 바꾸는 것에서는 많은 고민과 실험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물질화되는 과정에서는 실험이 덜 보이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시에서는 물질화된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2차원 평면작업보다 <0.420112>작업의 공간 활용은 매력적으로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균 : 사실 한황수 작가가 사진을 전공했기에 사전 크리틱 만남까지는 매체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했는데 오늘 전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진매체에 집중해 바라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보는 전시가 참 좋고 작가가 보여주는 4가지 맥락이 작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인선 : 저희가 사전 토크 할 때, 작가가 예전에 사진을 전공했던 학생으로서, 김도균 작가님은 선생님이 분명 사진을 가르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작가가 사진이라는 매체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 에세이집을 내고 싶어서 사진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점, 텍스트에 대한 부

가적인 장치 정도로서 단순하게 원했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작가들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찾아다니는, 사진 자체보다 사진을 활용해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한 것을 이제 와서 알게 되신 거죠.

김도균 : 그렇죠. 아까 이세준 작가가 귀납적, 연역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전이라는 것이 작가에게 작품을 일반관객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해오던 작업, 생각을 작가가 정리하고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작가에게 첫 개인전이라는 의미보다 쓴소리 단소리 다 듣는 오늘이 더욱 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작업거리가 될 수 있는 점은 작가가 갖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전광판 작업이나 화장실을 갖고 한 작업들에서 위트가 느껴지고 한황수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재밌게 봤습니다. 사진이라는 매체에 포커스를 맞춰 보고자 했던 어제와는 달리 사진을 대하는 태도를 알고 보는 오늘의 전시는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제 감상입니다.

김인선 :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해주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관객 :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전의 작업이나 지금의 작업도 그렇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들을 배열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물체를 찍었을 때 거기에 있는 색에서 어떻게 바뀌야겠다는 본인의 룰이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황수 : 어떤 노래에 꽂혀서 계속 듣다가 며칠 있으면 절대 안 듣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이 색으로 칠해야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색에 꽂히는 것은 있습니다. 흰 의자를 빨간색으로 칠해야지라기 보단 흰 의자를 가져와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색을 계속 입혀보면서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꿉니다. 다만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합성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어제 마음에 들어서 색을 입혔는데, 오늘 너무 맘에 안 들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색을 다시 바꾸게 되고 또 바꾸게 되는 반복적인 작업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색을 써야겠다는 것은 꽂혀

있지만 또 며칠 후에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균 : 만약에 저런 작업같은 경우, 저 색이 좋아서 작업을 했는데 혹시 이번 전시가 끝나고 저 색이 죽도록 싫어지면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한황수 : 지금의 색으로 보여드린 저 모습은 무조건 저 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다른 것이 제 걱정이면서도 즐거운 부분이라고 느낍니다.

김도균 : 요즘 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선택장애를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본인도 그런 것을 느끼나요?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작가로서 단호하게 선택을 하나요?

한황수 : 아직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장애가 있고 작업할 때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세준 작가님에게도 궁금하기도 한데, 회화작업을 하실 때 오늘 그린 것 위에 내일 또 그릴 수 있잖아요. 저도 <Freelancer> 작업을 예로 설명 드리면 저 레고가 44개 정도가 올라가 있다고 치면 다음날 하나를 더 올리고 싶기도, 하나를 빼고 싶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수정이 용이한 회화작업의 장점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끝나는 지점을 딱 정해버리는 그 순간이 궁금합니다.

이세준 : 저는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되게 커다란 단서 같기도 합니다. 이 전체 전시만 본다고 하면 이 전시가 과연 성공적이었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작가님의 전작을 보기 전에 현재의 작업을 봤을 때는 약간 의문점이 많이 들고 사진 자체, 작업 자체로 어떤 완벽성이라든지, 사진작가가 보기에 사진이라는 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왜 보이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작품의 질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은 귀납적인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업에 그 과정이 중요하고 작가의 작업들이 모두 그 프로세스에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작품

들마다 잘 보이지 않는 레이어로 깔려있지만 잘 보여주는 전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논지를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블록을 뺐다가 다음날 뺐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명동에서 저런 간판들을 모아 영상을 만들기까지의 흔적들, 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또 지금까지의 작업들이 크게 묶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가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선 : 그래서 패널 작가님들은 어디서 멈추시나요?

이세준 : 저도 비슷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은 예전에 했던 작업들을, 2010년에 했던 작업들을 꺼내서 다시 막 그림을 그리면서 6년간 바뀌었던 저의 미감과 조형적 지향점이 바뀌면서 예전에 좋았던 색을 뺏기도 하고 예전에 별로였던 부분이 좋아보여서 잘라 붙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변화하는 과정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상황이 있지만 계속 미감을 찾아내고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김도균 : 제가 작업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사진 같은 경우 대부분 시리즈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방금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미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작업이 유치해보이기도 하고 지금 한 것이 최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저도 딱 끊고, 시리즈를 끝내고 또 다른 시리즈로 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오픈을 해놓는 상황에서 시리즈별로 하고는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면 그 안에서 또 공통점이 나오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작가의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서는 다른 것은 없다는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좋게 생각하면 오픈마인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것보다도 계속 해가면서 계속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언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만 두어야 하는지는 스스로가 알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휘 : 어디서 끝내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황수 작가의 작업이 사진이라기 보다 이미지로 보는 관점에서 작업이 대부분 컴퓨터로 진행되기 때문에 카피와 실행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특성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버전을 만들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찾거나 끝이 다른 여러 버전을 보여주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보여주실 때, 사람들의 셀카를 이용해서 만든 작업을 영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한황수 : SNS의 배경 자체를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술관에 들어와서 작품을 보는 중간에 말풍선이나 자막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인선 : 제가 그 중간과정을 본 적이 있어서 첨언하자면 그 이미지들이 가상공간에 액자 안에 초상화처럼 걸려있고 가상공간 안에 가상인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실제로 작가가 만들었던 SNS 계정에 달린 댓글들이 떠다니는 겁니다.

한황수 : 네. 미술관에 들어가서 한 공간에 모나리자 같은 액자가 수십 개가 걸려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줌인을 해서 댓글을 보여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 다 본인이 한 작업이고 다 좋고 소중하겠지만, 작가님 입장에서 전시장에 있는 4가지 작업 중에 가장 재밌고 신났던 작업은 어떤 것이었나요?

한황수 : <Freelancer>작업을 가장 오랫동안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예쁘거나 멋있거나 이야기가 될 만한 장면을 찍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진을 소스로서 이용하고 지금은 그것을 갖고 놀이를 하는 있는 단계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인 작업입니다. 반면에 제일 아쉬운 작업은 <Tree>작업입니다. 제가 원하는 색이나 느낌과는 멀어진 느낌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0.420112>을 저랑 맞고 재밌어 하시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고 있습니다.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김인선 : 사실 저 씨트설치 작업이 가장 손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실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따고 겹치고 하는 과정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픽 툴과 합성을 하는 방법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결과물으로써도 가장 완성도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자체도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쓴 것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ee>같은 작업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사진으로 출력물으로써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불편해하는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작업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되게 이 작품 자체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황수 : 제 생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사진에서 출발하여 사진이 아닌 무엇인,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제일 극대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김도균 : 사진을 전공했다는 것이 나중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공대를 다녔는데 답이 있어서 답 없는 미술을 하기 위해서 사진과를 갔고, 사진과를 가서 하다 보니 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더 답 없는 미술을 더 공부했습니다,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과 친구들을 수업을 해보면 사진이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거기 갇히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황수 작가 같은 경우는 매체로서의 사진을 조금 가볍게 혹은 잘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황수 : 어제 살짝 선생님께 죄송했었습니다. 사진을 가르쳐주셨는데,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김도균 : 저도 사진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했냐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사진계, 미술계가 나뉘어져 있고 작가들 스스로도 너는 사진계고 나는 미술계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컨템포러리 미술 안에서 활동을 하는 작가

고 사진계에서는 사진도 미술이야, 사진으로도 작업을 할 수 있어 하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점점 드는 생각이 이런 사고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세계미술의 흐름에서 보자면 사진도 굉장히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표현하면 그것 또한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르쳐줬지만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작가가 미안할 것은 아니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작업이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희 : 거의 모든 사진가들이 사실 찍은 것을 포토샵으로 후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진가들이 포토샵의 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토샵으로 사진의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 작업들은 그래픽 작업을 하지만 사진을 굉장히 여전히 의식하고 있고, 그래픽 툴에 있어서 한황수 작가가 마스터나 그런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툴에서 완전히 능수능란하게 기능을 모두 사용하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배당한 느낌이 많습니다. 반면에 확장실 작업은 그래픽 툴을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 벽에다가 붙이면서 공간을 활용하고 모니터에서 벗어나서 그런 점에서 두 작업을 대비하면서 그래픽 툴을 마스터하길 바라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미지를 그래픽 툴로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스테디로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사진을 자기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 만든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작업도 그렇고 작업의 프로세스가 다 일정한데 그것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황수 :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번 전시에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했지만 다른 분들이 다른 의견을 주십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견을 주시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성희 : 한 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것이 한황수라는 개인이 갖는 색이 있는데 괜히 다른 색과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다 하다가 한황수 고유의 색을 흐트러버릴 수도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조심스럽습니다. 수용하는 것에 있어 개인의 색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도균 : 수용을 하되, 한황수라는 필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진에서는 토마스 루프 같은 사람이 이성휘 큐레이터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로서의 사진을 잘, 그런 프로세스를 더 한황수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선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관객 : SNS 사진을 가져올 때 직접 물어보고 가져오셨나요?

한황수 : 한명 한명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실겁니다.

김인선 : SNS는 누구나 보라고 다 공개를 한,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변형이 되어 활용한 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의 성격을 잘 활용한 그런 부분은 은연중에 보여주기도 한 것처럼 보이고 본인의 얼굴이 있음에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공개해 놓은 사생활이 어디선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나 사실은 사회문제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생각해 합니다.

관객 : SNS작업은 혼자서 하는 게임, 놀이로 볼 수 있는 작업들과 다르게 타인의 코멘트나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황수 : SNS작업의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한 인물을 만들 때 레이어를 겹쳐가면서 만든 것은 똑같은 과정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댓글이 추가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 점이 해오던 작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싫어서 연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영상을 만들자, 댓글을 수집하자, 인스타그램에 다시 올리자 하는 과정들이, 관계들이 플러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자체는 기존의 작업과 다르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플러스되는 요소들을 시험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선 : 프로세스는 여전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추가하게 되는, 아까 이세준씨가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뭔가 나오는 것이 한황수 작가 작품에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들 얼굴사진을 쳐다보고, 보다 보니까 이상형을 만들게 되고, SNS에 올리고 댓글을 받고 하는 프로세스가 생기니까 또 활용해서 플러스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작업이 또 다른 작업으로 점점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 :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순전히 작가 생각에 맘에 드는 어떤 것을 정해서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목표의식 같은 것이 귀납적으로 진행되고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지점에서 어쨌든 어떻게 끝마무리가 된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게 관객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질문을 잘못하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뭐 생각이 달라서 의견을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내가 여기서 뭘 봐야하는 거지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세준 : 아까 전시만 두고 보았을 때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런 질문에 여기서 관람객들이 무엇을 봐야하고 무엇을 볼 수 있을 만큼 제시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마주했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지금 빨리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단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미감, 조형적인 부분, 작가의 사고방식이나 생각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단서를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바가 뭐야 라고까지 물어보는 것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람객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변호를 하고 싶고, 그냥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것들을 추려낼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출발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작가 입장에서도 정답을 만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나를 때릴 수 없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 거기서 어떤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싶어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길을 원하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객 : 시대구분으로 따지면 지금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이세준 :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선 : 시대구분을 하자는 것 보다는 태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상황 이잖아요. 어떤 것이든 다 끌어들이 수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질문하신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어제 작가와 같이 얘기했던 점이 뭐냐면, 작가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돼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를 의식하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어색한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 작가는 꼭 그게 반드시 필요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보니까 이런 관심사가 표현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설명이라는 것을 하기위해 여러 가지 사소하지만 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할거라고 생각한 매뉴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작품을 이해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종류의 형식적인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이 얘기를 해줘야해, 라는 개념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색을 바꿔보고 이런 것을 조합해보고 저런 기호라는 것에 이끌려서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건 다뤄보는 것에 흥미를 보여주는 태도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얘기를 했었죠. 개념 자체를 보여주는 전시라기보다는 작가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지점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정도, 관객 입장에서는 뭔가 큰 개념을 얻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관객 : 어떤 작가의 전시를 가셔도 사실 뭐 그래서 어찌라고 하면 사실 다 막막해지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은 매한가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하지 라는, 질문 자체를 못 하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인선 : 아마 지금 말씀하신 작가님(관객)의 작업 스타일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것을 확 드러내고 사람들과 공감대를 같이 얻는 것이 중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잘 안돼서 그렇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볼 때, 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내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을 볼 때 어떻게 도대체 이 모양이냐 라고 비치지 않을까 생각 하는 거죠.

관객 : 어떤 뚜렷한 문제의식이나 목표 이런 것이 있어야한다 없어야한다 라는 질문은 아니고 전시의 형태에 대한 질문인데, 관객이 소외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시 타이틀부터 작가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관객은 반드시 지는 게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도대체 이것을 왜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 : 저도 이 질문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제가 작가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상냥하고, 반듯하고 참 좋은 면이 많은 분이라 참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작품들이 뻔한 느낌도 있지만 화장실을 표현한 작업은 아, 한황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PT & Critic이잖아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작가로서의 고민을 하자는 느낌이 들고, 화장실 이미지의 작업을 봤을 때는 정말 한황수가 자기를 표현하는구나, 여기 0.4평 어찌고 막 쓴 것을 보니까 본인의 포지션이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끝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내용의 랩이 매우 아름답고, 디스플레이도 아주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심한 것은 진짜 한황수의 어떤 포지션이 이미 돼있구나, 그런데 이는 한황수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단계에서 우리 눈에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뻔해보이던 저 사진들도 다 같이 시작하는 작품으로 보입니다. 아직 여기서도 희끄무러한 것이 뭔지 몰라, 여기서도 공대생이었던 어중간한 느낌을 거쳐 내가 지금 있는 모습,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래서 이 랩에서도 형태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빼고 싶고 어떤 날은 넣고 싶고 이런 식의 고민들과 너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런 크리틱을 통해서 작가와 우리가 같이 어디론가 가야되겠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한황수 작가를 알고 이 작가의 앞길을 애정을 갖고 보지만 이렇게 잠깐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정말 잘 찾아내야 하는 게 한황수 작가가 앞으로 가야될 길이지 않나 합니다.

김도균 : 저도 어제 이전과 어제, 오늘을 보는 입장이 다 다른데, 황수에게 이야기해주려고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전시나, '사진의 형식', '매체의 정체성', 전시 구성 왜 이렇게 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질문을 만들었는데 어제 작가가 사진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들으면서 싸그리 녹아 버리면서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고 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전시를 보니까 아 첫 전시인데 한황수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지금 나는 그냥 이정도입니다, 라고 앞으로의 저의 앞길을 격려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의 눈높이로 본다면 굉장히 잘 구성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로만 하는 작업은 어때요?

한황수 : 지금 제가 배운 건 사진 하나구요. 빠른 시간 내에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또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일단 하나는 배워냈고 다른 것을 배우면 또 융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도 과감하게 영상이나 시트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진은 계속 해야죠.

이세준 : 저는 궁극적인 어떤 것을 지향하지 않는 태도가 계속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구체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태도가 아닌 가벼운 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날카롭게 지금 세대를 저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것이라든지 보면서 느껴지는 불편함이라든지, 아직 군더더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군더더기들이 읽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나이브함이나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가볍게 접근하고,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그냥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것들이 여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형식의 여행인거죠. 그런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건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전에 SNS의 사진으로 만든 이미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은 작업이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 발전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쪽 지나쳐온 과정을 내가 되돌아 짚어보면서는 내 작업을 분석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작업이 갖고 있는 많은 키워드, SNS의 구조나, 사진 포즈에 대한 정형성, 이상형, 피드백, 뮤지엄 등 이야기가 쪽 흘러가는 것은 재밌고 좋은데 그 이야기의 끝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스스로 반추해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가는 방향은 놓아버리고 쪽쪽 따라가는 건 좋지만 이미 걸어온 길을 분석하고 다시 표현하는 것이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고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선 :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SNS에서의 여러 가지 키워드나 방향성이 이것저것 보이는데 거기서 중심을 잡는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다 취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실제로 관객들이 뭘 보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헷갈려하고 중구난방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면 거기에 포커스가 되는 작업형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T&Critic을 마치겠습니다.